

김양곤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조합장 청렴상



김양곤<앞줄 왼쪽에서 세번째>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 조합장이 수협중앙회 제1회 전국 회원조합 청렴수협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조합장은 재임 6년 동안 업무추진비와 출장비등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는 등 조합의 건전경영 정착에 크게 공헌한 점을 평가받아 상을 받았다. 자발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확립하는 등 선도적으로 청렴 경영을 주도했다. 크고 작은 봉사과 기부활동 등도 고려됐다. 김 조합장은 과감하고 강도높은 2016년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자본잠식에 빠진 조합을 건전조합으로 탈바꿈시켰다. 사업 잉여금과 조합 운영비절감한 비용 등을 바탕으로 조합 탄생 이래 처음으로 조합원들 에게 배당금도 지급했다. 김양곤 어류수협장은 “봉사와 헌신하는 조합장으로서 조합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것”이라며서 “재임기간 상호금융 업무취급과 선어가공공장 건립 등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ejhung@kwangju.co.kr

강현철 신임 광주노동청장 취임



제27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강현철(55)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 부산 출신 강 신임 광주노동청장은 경남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노사관계학 석사를 졸업한 뒤 지난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주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노무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장, 고용노동부 서비스산업예방법팀장,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신임 청장은 10일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고용문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감소 분야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남부경찰 학폭·성폭력 예방 캠페인



광주남부경찰(서장 조상현) 여성청소년과는 10일 광주시 남구 입암동 빗어울초등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광주남부경찰 제공>

인사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과장 황영표 ▲의산세무서장 김현기
◇초임 세무서장 ▲정읍세무서장 정학관 ▲남원세무서장 김상경 ▲목포세무서장 장길엽 ▲해남세무서장 박민후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33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고(故)유중호·김정순씨 장남 홍균근, 나중훈(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조유선씨 장녀 채운양=20일(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차평동 홀리데이인호텔 2층 라벤더홀 062-385-7000.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유허회(회장 이태웅)=16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여성이화유허회(회장 이보희)=22일(월)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알림

▲청소년전화062-1388=광주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추진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슬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화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

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조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단)=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전독란님 별세, 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방훈(전 삼성전자 전무)·윤희(전

목포영흥중 교사)·진희(목포마리아회고 교사)·민희(전 아이비학원 원장)씨 부친상, 홍성근(고려대 강사)·김대중(목포제일중 교사)·현재형(솔라팩토리아노베이션 대표이사)씨 장인상, 천지성(서울중앙지법 판사)·천미성(외교부 서기관)·천유현(NICE평가정보 대리)·천유상(오래곤대 박사 과정)씨 조부상=발인 11일(목) 새벽 5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유삼임님 별세, 문병호·병구·병철·순암·영순·영순씨 모친상, 강순금·정미정씨 시모상, 정해근·고근석·이지로씨 빙모상=발인 11일(목) 오전 8시30분 조선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신석삼님 별세, 이형영(대일감정원)·형석(변호사)·형윤(대구 가톨릭대학교)·경희·현주씨 모친상, 남경순·박현선·김수정씨 시모상, 이명진씨 빙모상=발인 12일(금) 오전 7시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2분향소 062-231-8902.

분필 놓고 잡은 카메라에 행복을 담습니다

교원 퇴직후 광주 실버 1인 미디어 제작자 활동 나상용 씨

2008년 정년 5년 남기고 퇴직 영상 편집·촬영 공부 시작 이웃들 일상의 아름다움 그려 2011년 서울노인영화제 장려상 “실버세대 다큐 영화 제작이 꿈”

“인생 2막을 여는 우리 세대를 위한 다큐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광주시 서구 광주시청지미디어센터에서 만난 미디어 1인제작자 나상용(69)씨는 “영상 제작 과정은 참 힘들지만 막상 제작하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면서 “스스로 기획을 통해 만든 영상은 방송국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PA)을 제공하거나 작품 퀄리티가 좋으면 공모전에 출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꾸준히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순천공고, 담양공고, 전남공고 등을 거쳐 지난 2008년 33년 교직 생활을 접었다. 교사 시절에도 학교 방송반을 지도하는 등 미디어와의 인연은 수십년이 훌쩍 넘었다. 나씨는 “어느순간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30여년 넘게 학교라는 틀 안에서 켜 없이 살았지만, 새로운 인생 2막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정년을 5년 앞두고 큰 선택을 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퇴직 후 그는 ‘미디어’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했다. 2009년 광주시청지미디어센터에서 영상 편집·촬영 등 과정을 접하면서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됐다.

2011년 서울노인영화제에 ‘또 다른 배부름을 맛보다’를 출품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의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발견한 소박한 나눔의 과정에 대하여 완성도 있는 연출력으로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씨는 “말바우 시장에서 ‘천원 밥상’으로 그 이상의 행복을 나누는 곳이 있다. 손님에게 값싸고 맛있는 식사를, 봉사자에게는 봉사의 기쁨이, 식재료를 기부하는 자에게는 나눔의 행복이 있다”면서 “소박한 이웃들의 모습에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다른 배부름의 가치를 차분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중장년층이라면 한번쯤 풀어볼 귀농을 소재로 ‘귀농, 로망인가 노망인가’를 제작했다. 스스로가 귀농에 도전하면서 겪는 초보농부의 좌충우돌 경험담을 담았다. 앞서 나씨는 강홍길씨와 공동 감독한 극영화 ‘허름한 의자’ (2012)로 제7회 정읍실버영화제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허름한 의자는 FTA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성공을 일궈내는 나주 화답마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다. 공모전에 영상을 출품해 입상한 것도 여러 차례라고 한다. 나씨는 단순히 1인 제작자 아닌,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 어르신미디어협동조합 ‘인디테일’은 지난 2017년 12월 나씨를 비롯해 65세부터 80세 초반을 넘긴 ‘1인 시니어 제작자’들이 모여 꾸



려졌다. 전지사 ‘in’과 세밀하다라는 뜻을 가진 ‘detail’을 조합해 이름을 만들었다. 인디테일 협동조합은 지난 해 5월 한국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전국을 순회했다. 인디테일은 영상 미디어 예술의 다양성과 저변확대를 통해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중·장년층을 상대로 지난 5월에는 영상편집

과 드론 교육을 실시했다. 나씨는 “인디테일 회원들은 사실상 미디어 1세대”라면서 “처음에 어렵고 힘들게 배웠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 미디어를 접하는 후배세대들이 미디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쉽고 좋은 것만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전남교육청, 다문화 정책학교 현장 의견 수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전남지역 다문화 정책학교를 찾아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청올레’를 실시했다. 해당 학교는 중도입국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집중 운영하고 있는 영상중학교(한국어학급)와 모든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학교인 나주북초, 동강초 등 3곳이다. 이날 경청올레는 다문화 정책학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허호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다문화 정책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과 다문화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며 “담당 교사들의 다문화 이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전남 고액 기부자·복지현장 ‘만남의 날’

전남사랑의열매 전국 첫 개최

전남사랑의열매(회장 하정)는 최근 무안군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에서 ‘전남 아너 소사이티 회원·사회복지현장과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전남의 복지발전을 위한 전국 최초로 시도됐으며, 아너 소사이티 사업 경과 보고, 아너 지원사업을 진행한 We Start

강진글로벌 아동센터의 ‘미래세대 인재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사업 순 등으로 진행됐다. 하정 전남사랑의열매 회장은 “아너 소사이티는 2007년 개인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어 현재 전국 2120호를 넘어섰다”면서 단순히 개인 기부를 넘어서 지역 나눔 문화를 만들고 선도해가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